

메시, 美 마이애미서 4경기 연속골

FC델러스와 2023 리그스컵 16강전서 승부차기
인터 마이애미 5-4 승리 견인... 8강 진출 이끌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미국프로축구 진출 후 4경기 연속골로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컵대회 8강을 이끌었다.
마이애미는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FC 델러스와의 2023 리그스컵 16강전에서 4-4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5-4로 승리했다.
메시가 승리에 앞장섰다.
메시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최근 4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마이애미는 선제골 이후 내리 3골을 내주며 1-3으로 끌려가던 후반 20분 벤지민 크레마치의 만회골로 추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3분 뒤 한 골을 더 내줬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35분 상대 자책골로 한 골을 따라잡은 뒤 후반 40분 메시가 환상적인 프리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지난달 22일 크루스 아술(멕시코)과의 조별리그에서 터진 프리킥 데뷔골에 이어 마이애미에서 기록한 두 번째 프리킥 득점이다.
또 미국무대 진출 후 4경기 연속골이기도 하다.
이날 2골을 추가한 메시는 마이애미에서 4경기 동안 7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메시의 골로 기사화됐던 마이애미는 승부차기에서 5명이 모두 성공하면서 2번 키커가 실축한 델러스를 제압했다.
리그스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가 6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리그스컵 16강전 FC 델러스와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서 골을 넣고 있다.

프로축구팀들이 경쟁하는 컵대회다. 을 치른다. 아직 상대는 결정되지 않았다. /뉴시스



최근 호주에서 열린 2023 호주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슈퍼500 대회에서 공희용(사)과 김소영이 여자복식 정상을 차지했다.

공희용, 세계무대 호령

김소영과 함께 팀 이뤄 호주오픈 배드민턴 대회
여자복식 우승... 전북 배드민턴 위상 드높여

전북 여자 배드민턴 간판인 공희용(전북은행)이 세계무대를 호령하고 있다.
7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호주에서 열린 2023 호주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슈퍼500 대회에서 공희용이 여자복식 정상에 또 다시 우뚝, 전북 배드민턴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우승으로 공희용은 지난주에 펼쳐진 일본오픈 우승에 이어 2주 만에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쾌거를 이뤘고, 올해에만 국제대회에서 4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됐다.
현재 여자복식 세계랭킹 3위로 알려

지고 있는 공희용-김소영(인천국제공항)은 공격과 수비 조율이 월등하는 등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결승에서 만난 중국 조를 단 1세트도 내주지 않고 2대 0 스코어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김효성 감독은 “(공)희용의 기량이 날로 상승하고 있고, 자신감도 불어 좋은 성적을 연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국내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강원 북평중·전주 동중 등
레슬링 전지훈련팀, 진안 방문

진안군은 7일 관내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하러는 전국 역도팀, 레슬링팀 선수단들이 전지 훈련을 하기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31일~8월 11일까지 12일간 전북 소년체전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강원 북평중 군산 산북중 전주 동중, 부안중의 레슬링 선수단 30여명이 진안군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한 순창북중과 순창고 역도 선수단 20여명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방문 훈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문 선수단들이 친해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진안군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갈 바란다”며 “우리군을 방문해 전지훈련을 마친 체육종목 선수단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태권도 이해와 교육 현장 적용에 큰 도움”

태권도진흥재단, 전국 유·초·중등 교원 대상 특수분야 직무연수 가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함께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태권도 직무연수 아서와 태권도는 처음이지 과정을 마쳤다. 이번 직무연수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간 태권도원에서 진행됐다. 전국 유치·초·중등 교원 40명이 참여해 뜨거운 교육 열기를 보였다. 태권도 이해에 대한 이론교육과 품새·겨루기·자기방어·태권체조 등의 실기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해 현장 교육 지도에 필요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 김태영(경기도 용인시, 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씨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정이 잘 구성된 거 같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흥미롭고 성과있게 진행해준 사범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는 교육 참여 소감을 남겼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태권도 장점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교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직무연수에 참여한 한분 한분이 태권도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각 학교에서 분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특수분야 연수기반 신청을 통해 겨울방학 기간 2회에 걸쳐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태권도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우주=전문선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태권도진흥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북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태권도 직무연수 아서와 태권도는 처음이지 과정을 마쳤다. 이번 직무연수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간 태권도원에서 진행됐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최훈식 장수군수,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 출전선수 격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3일 장수군청탁구단 훈련장을 찾아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 출전선수를 격려하고 대만 타이페이와 타이중 국제대회 메달 획득을 축하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은 7월 16일부터 19일, 21일부터 24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백영복 선수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대회 3관왕을 차지했으며, 이근우 선수는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은 지난 4일부터 경기도 이천선수촌으로 국가대표합숙훈련에 들어가 훈련 중이며,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되는 코리아오픈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6시~8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진 국민MC - 서정우
가수 - 백미현(난바람, 넌눈물) 이태원(술개, 여인아) 박영일(축제) 노스텔지어(별미소) 백영주 최영준